



이음, 제주

주민과 공간을 잇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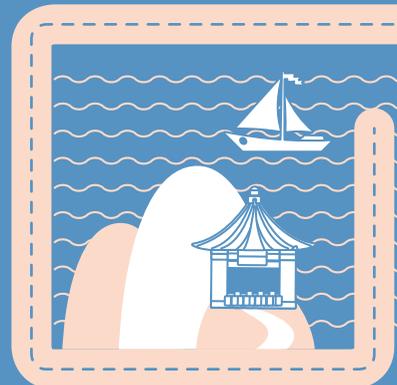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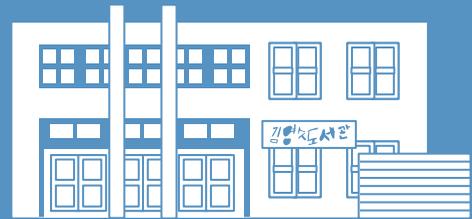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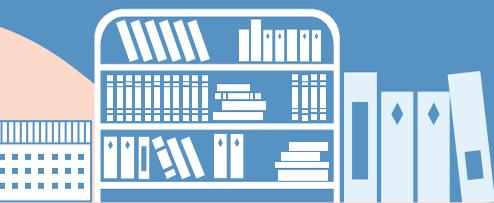
TRACK. 15



Special Theme

제주를 더 제주답게
도시재생 공간 이야기

제주책방 / 디자인공장 / 케왓 / 김영수 도서관



과거와 미래가 공존하는 따뜻한 사랑방 제주책방



#제주책방 #제주사랑방 #고씨주택

요즘 SNS에서 #제주책방 #제주사랑방 태그를 심심찮게 볼 수 있다. 제주시 원도심 산지 천변에 자리 잡은 제주책방과 제주사랑방을 방문한 사람들이 그 매력에 반해서 온라인 공간에 글을 올리고 있기 때문이다. 제주책방과 제주사랑방은 옛 고씨주택의 밖

거리와 안거리를 제주자료와 도서를 열람할 수 있는 작은 책방과 주민들의 커뮤니티 공간으로 개방하고 있다. 이곳을 사람들이 언제나 편하게 찾을 수 있게 설과 추석연휴를 빼고는 연중무휴로 오후 12시부터 저녁 8시까지 운영하고 있다. 올해 4월부터 시범운영을 하여 7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

동안 '원도심 사진강좌', '제주전통건축문화 체험교육' 등을 진행하여 참여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주민들이 직접 교육을 통해 돌담을 쌓고, 잔디밭에 보물찾기 하듯 군데 군데 수선화를 심었다. 올 가을을 지나 겨울이 오면 돌담 가에 핀 하얗고 노란 수선화가 빼꼼하고 당신을 반길 것이다.

제주책방과 제주사랑방은 옛 고씨주택의 밖거리와 안거리를 제주자료와 도서를 열람할 수 있는 작은 책방과 주민들의 커뮤니티 공간으로 개방하고 있다. 이곳을 사람들이 언제나 편하게 찾을 수 있게 설과 추석연휴를 빼고는 연중무휴로 점심때부터 저녁 8시까지 운영하고 있다.



[운영목적]

- 주민 커뮤니티 활성화로 탐라문화광장 활성화 기여
- 제주 콘텐츠 기반 프로그램 운영으로 원도심 활성화 거점 조성
- 제주 콘텐츠(도서, 행정간행물, 자료) 전시·홍보

[일반현황]

- 위 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관덕로17길 27-1(일도일동)
- 건축연도: 1949년(건축물관리대장상)
- 대지면적: 276㎡
- 건축면적: 안채 76.03㎡, 바깥채 33.05㎡(지상1층, 2동)

[주요 사업 내용]

- 제주 옛사진, 옛풍물 등 전시·기획 프로그램 운영
- 제주의 역사, 문화, 예술, 생활사 등 주제별 문화 프로그램 운영
- 주민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 제주관련 행정 간행물에 대한 열람 및 정보 제공

[분석(성과)]

- '원도심 사진강좌', '제주전통건축문화 체험교육' 등 제주콘텐츠 기반 프로그램 운영으로 주민참여 활성화
- 제주사랑방 개방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고질적인 지역 내 주민모임 장소 대관 문제 해소에 역할을 하고 주민커뮤니티 활성화에 기여
- 제주책방 운영으로 제주콘텐츠를 홍보하고 '기억저장소 자료 기증 캠페인'을 진행 다양한 제주관련 자료 확보
- 이용자만족도조사 분석 그 결과를 공간 운영에 반영

[문제점·개선대책]

- 주민이 주제적으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공간으로 발전되어야 함
- 제주책방에 한정되어 있는 열람공간을 제주사랑방까지 확대하여 공간 활용도를 높여야 함
- 제주콘텐츠 기반의 전시·기획·공연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으로 원도심 활성화 거점으로 조성해야 함

[운영개요]

- 대 상: 제주도민 및 관광객
- 사업기간: 2019년 1월 ~ 2020년 12월
- 운영시간: 연중무휴 12:00 ~ 20:00
※ 설, 추석연휴 휴관

도시 안에서 조용히 잠시
쉬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
좋았습니다.
쉬면서 '제주'에 관련된
책을 읽으면서 충전 할 수
있었습니다.



제주도민 공간이 되길
바랍니다.
관광객이 북적거리는
공간이 아닌
도심속 숨터같은 공간으로 유지되길.

책들을 분류하여
배치해 주세요.



입구 찾기가
힘들어요.



벽에 액자 같은 것들이
있으면 더 공간이
풍성해 보일 것 같습니다.

무엇이든 말씀해주세요

더 좋은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부족한 점, 불편한 점, 아쉬웠던 점 등
주민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 보았다.

정감 가고 깔끔한 공간에서
잠시 쉬고 갈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책 종류가 조금 더
다양했으면 좋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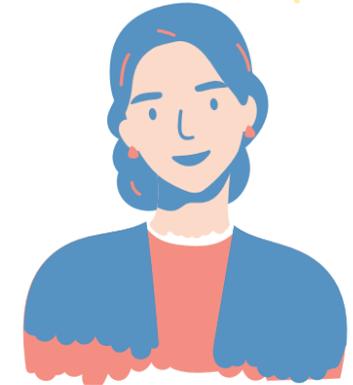
좀더 다양한 책
(만화책, 소설, 시집, 잡지 등)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주 특산품
(감귤주스, 제주커피 등)으로 된
음료를 저렴하게
판매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주 느낌이 나는
특유의 공간이 좋아요.
많이 홍보되서
많이 이용했으면 좋겠네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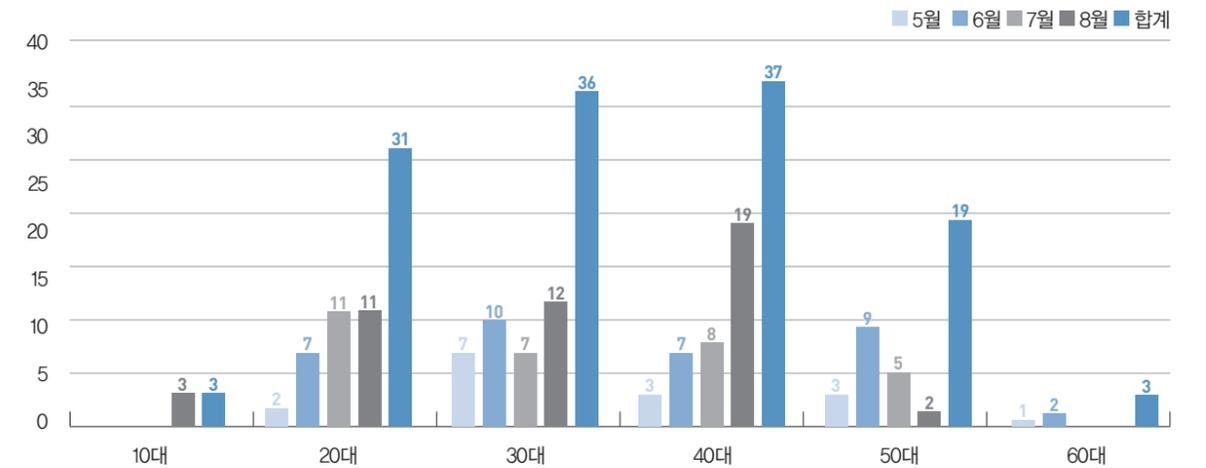
사랑방에서 책을
읽을 수 있으면 더 좋겠습니다.
더운 날 에어컨 빵빵하니
정말 사랑방 같은 느낌이에요!

주민들의 의견은 만족도 조사 의견에서 발췌한 내용으로 구성했습니다.

제주책방 이용자 만족도 분석 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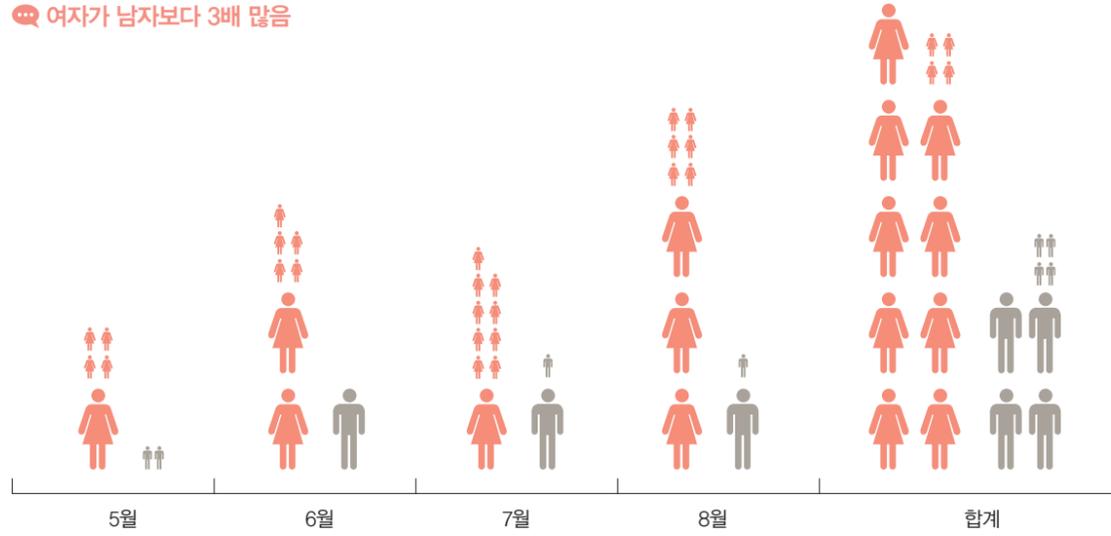
연령별 데이터 단위: 명

대체적으로 연령대가 고르게 분포 되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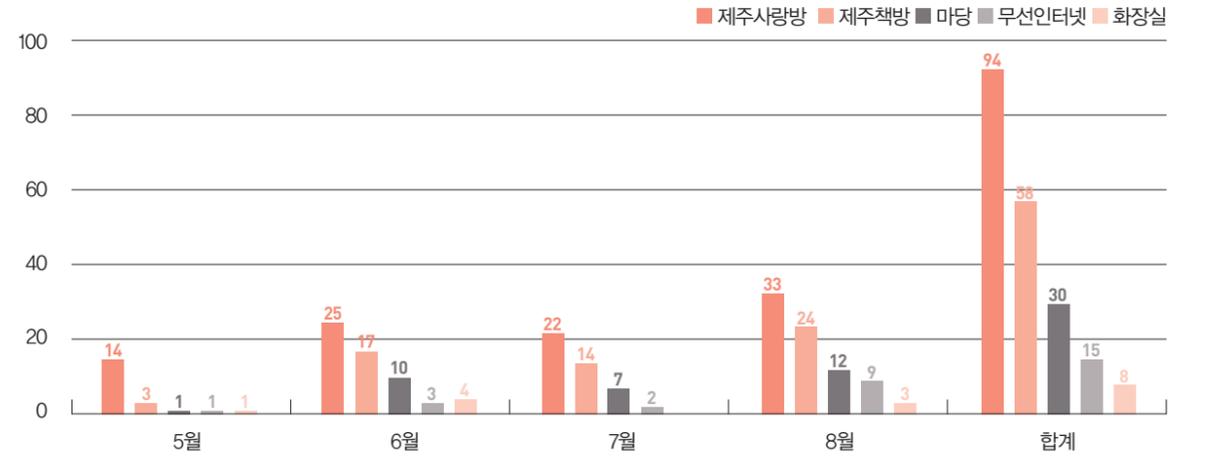
성별(남, 여자) 데이터 분석

여자가 남자보다 3배 많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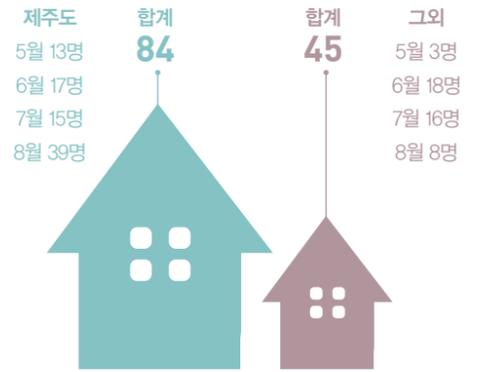
가장 만족한 이용시설(중복체크가능) 단위: 명

제주사랑방과 제주책방이 가장 만족한 이용시설에서 점차 다른시설도 늘어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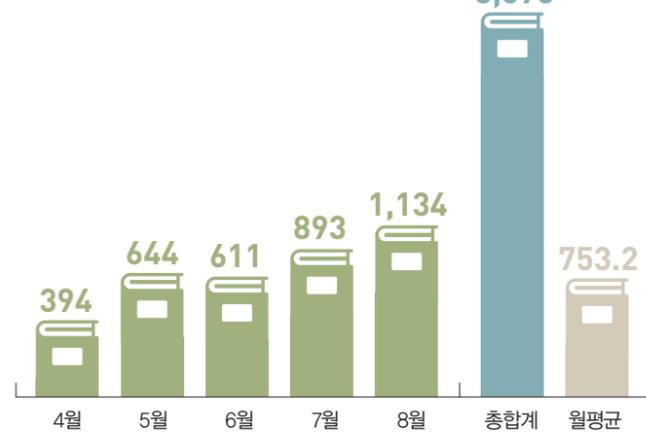


거주지 데이터

타지역 보다 제주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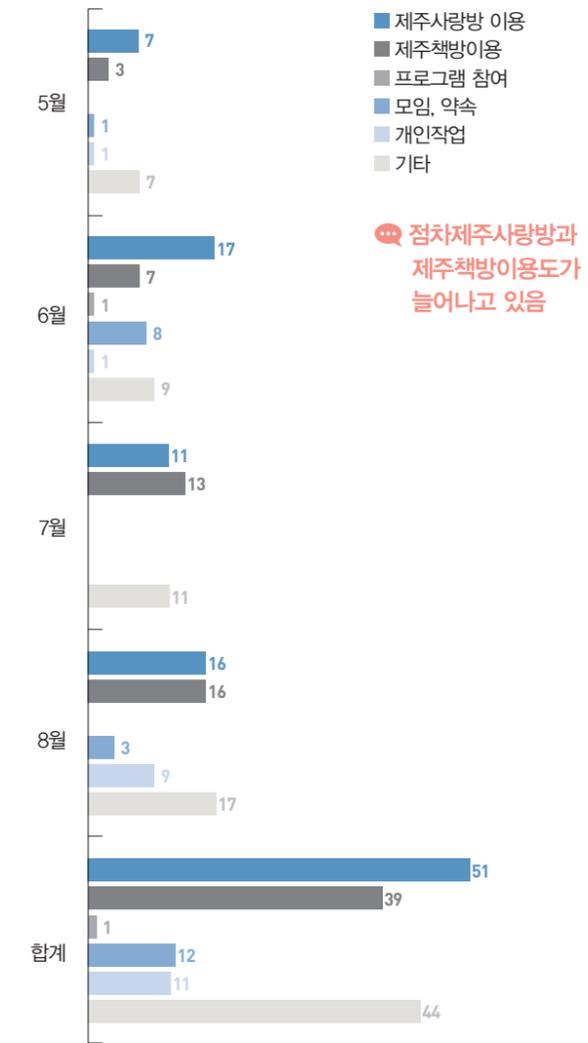


제주책방 월별 방문객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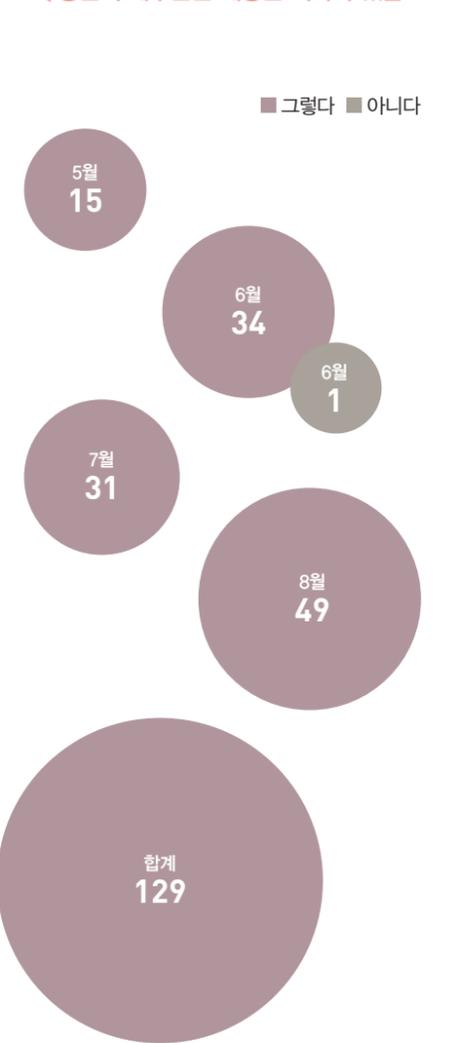
방문목적(중복체크가능) 단위: 명

점차제주사랑방과 제주책방이용도가 늘어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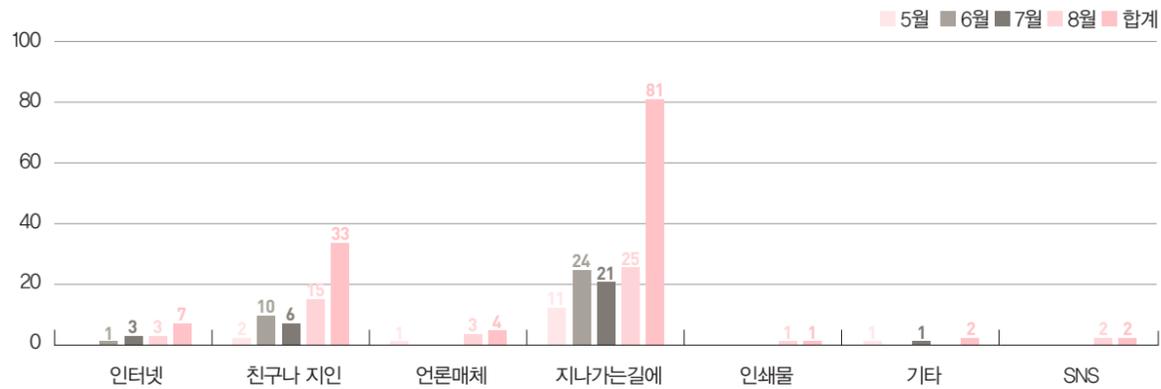
제주사랑방 재방문 의사 단위: 명

방문객 대부분은 재방문 의사가 있음



어떤 경로를 통해 제주책방을 알게 되셨습니까? 단위: 명

대체적으로 친구나 지인을 통해 알게되거나, 지나가는길에 우연히 알게되어 제주책방을 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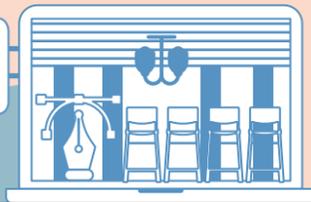




디자인으로 원도심을 품다 디자인공장

칠성로의 건물번호판이 달라졌다.
원도심의 특색을 품은 디자인으로 새롭게 탄생한 과정을 만나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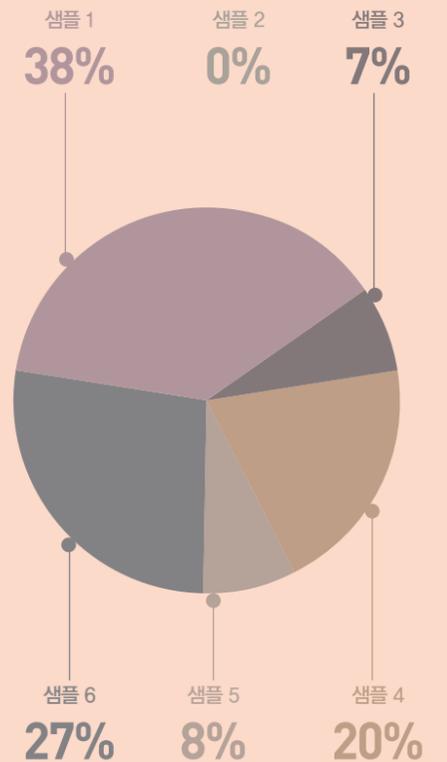
디자인공장



2014년부터 전면 시행한 도로명주소는 지난 2016년부터 지역특성을 살리고 가시성도 함께 확보할 수 있는 자율형 건물번호판 설치 절차가 대폭 간소화됐다. 하지만 설치비용이 더 든다는 이유로 대부분 규격과 색상이 동일한 표준형 건물번호판으로 설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제주도시재생지원센터는 기존의 획일화된 오각형·사각형 표준형 건물번호판이 아닌 지역의 정체성과 특색을 반영해 모양, 크기, 재질을 다르게 제작했다. 해당 사업은 원도심 칠성로에 위치한 건물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디자인을 맡은 업체는 제주도시재생지원센터가 젊은 디자이너와 창작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오픈한 디자인공장 입주 멤버가 선정되었다. 누구보다 칠성로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칠성로의 역사, 정체성, 문화적 가치를 고스란히 디자인에 담고자 노력했다. 새롭게 디자인된 자율형 건물번호판은 설문조사를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제작되었다. 주민들은 번성

했던 원도심의 문화 전성기를 그리워했다. 더불어 원도심에 대한 자긍심, 전통, 역사에 대한 자부심을 표현할 수 있는 디자인을 요구했다. 주민들의 의견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해 칠성로 자율형 건물번호판의 디자인 콘셉트가 정해졌다. 바로 '문화적 소통'이다. 단순히 건물의 정보만 나타내는 도로명 주소판이 아닌 지역의 아이덴티티를 나타낼 수 있도록 하였으며, 칠성로 길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으로 확장이 가능한 지역적 효용 가치를 함께 담아 디자인했다. 최종 디자인된 시안 샘플 6종을 가지고 1차, 2차 현장을 방문, 주민들의 투표를 진행했다. 모바일 설문 조사도 함께 진행해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최종 디자인이 선정되었다. 앞으로 제주도시재생지원센터와 디자인공장의 입주 멤버들은 제주의 좋은 인상과 이미지를 전달할 수 있는 다양한 디자인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안 선택 투표 최종 결과



일픽셀

- A 제주도에서 영상컨텐츠를 제작한다.
 - B 보영상(TVCF, SNS바이럴, 브랜드필름), 애프터무비(행사스케치), 모션그래픽 등
 - C 제주도 전 지역
 - D 취준생 2명이 어쩌다 창업으로 시작한 게 어느덧 4년 차 기업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확실한 수익모델, 백년대계의 명확한 미래비전, 킬링 아이템의 브랜드컨텐츠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만의 색깔을 찾아주시는 분들 덕분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제주도의 크리에이티브이한 청년들과 콜라보를 통해 브랜드컨텐츠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디자인공장의 입주 멤버들과 다양한 콜라보레이션과 네트워킹을 통해 같이 성장할 수 있길 기대합니다.
- 👤 김정민, 염호석(공동대표) 🌐 www.jeu1px.com

원시티콘텐츠플랫폼

- A 원도심 콘텐츠를 프로듀싱하는 그룹
 - B 다양한 문화 콘텐츠
 - C 원도심
 - D 뮤지컬 기획, 디자인, 기술 스텝 및 문화콘텐츠 기획제작 아카데미 | 성급길, 칠성로길 문화적 활성화 프로젝트 | 유희공간 활용 문화, 여행 콘텐츠 개발 | 창작 뮤지컬 프리프리덕션
- 👤 김진희 🌐 contentsjeju@daum.net

퍼스트제주

- A 처음 그 마음으로 당신의 새로운 시작을 디자인하다.
 - B 그래픽디자인, 편집디자인, 사인디자인
 - C 제주도 전 지역
 - D 원도심에 있는 기존 가게 또는 사업장을 고객이 원하는 디자인 방향에 맞춰 디자인하여 원도심의 이미지를 변화시키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 👤 한성준 🌐 firstjeju1@naver.com
📷 @jejudesign_first, @ed_han.s

जू드

- A 로컬 브랜드를 개발하고 기존 브랜드를 재정립하여 지역에 부합한 브랜드 개발 그룹
 - B 지역콘텐츠 기획 개발, 원도심 문화살롱, 시각디자인, 제품디자인, 영상디자인, 온라인 광고 홍보, SNS홍보, 여행자 스테이 '더들집' 운영
 - C 제주도 전 지역
 - D 지역의 스토리를 찾아내 콘텐츠로 제작,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 가는 지역관리회사로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과 함께 협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또한 지역의 상품을 개발하고 개성을 담은 디자인을 부여해 지역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브랜드를 개발할 계획입니다.
- 👤 양수정 🌐 www.blog.naver/durdlezip

디자인공장 사람들

디자인공장에 모인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은 분야는 다르지만 제주와 디자인을 사랑한 이들이 만들어 가는 로컬 콘텐츠를 소개한다.

- A 그룹을 한 문장으로 표현한다면 B 주요 생산 콘텐츠
- C 주 활동지 D 디자인공장에서 진행할 앞으로 계획을 말해주세요

JND(제이앤디)

- A 디자인으로 가치있는 일을 하는 곳
 - B 시각디자인(CI · BI · EDITORIAL · PACKAGE)
 - C 제주도 전 지역
 - D 제주에 있는 다양한 콘텐츠를 디자인적으로 재미있고 신선하게 풀어나가는 일들을 하고 싶습니다. 디자이너라는 직업 자체가 전문직이다 보니 자기만의 틀에 갇혀있는 경우가 많은데 디자인공장에는 기획, 영상, 의상, 공공디자인 등등 저와 다른 분야의 사람들이 모여 있어서 더 다양한 시각으로 제주를 연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회사가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라 시각디자인관련 작업 외에 콘텐츠 제작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들은 하나씩 준비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제주에서 아직 알려지지 않거나 잊혀져가는 소재들을 찾아 다양한 분야의 분들과의 협업을 통해 콘텐츠를 만들고 브랜드하여 제주를 알리고자 합니다.
- 👤 진혜정 🌐 wsgudfo@naver.com

D.D.Square

- A 제주의 과거, 현재, 미래를 담고 싶은 디자인 공간
 - B 테마 의상 및 관광 문화 상품
 - C 제주도 전 지역
 - D 제주를 담지만 지나치게 고집하고 않는 디자인을 개발하여 시그니처를 인정 받도록 노력할 것 입니다. 앞으로 제작하고자 하는 시그니처 의상은 제주 전통 문화에 맞는 자연 염색 원단을 개발해 각종 무대복에 적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특별한 형식과 형태를 필요로 하는 주요 종교복 등을 제작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반 기념품이 아닌 지역 · 문화 · 예술의 특징을 담은 디자인 의상도 개발할 계획 입니다.
- 👤 윤성희 🌐 staryoon@gmail.com

메르치보꾸

- A 감사합니다!
 - B 공간 디자인, 재생 디자인
 - C 원도심
 - D 건축재생분야의 재생재료 · 건축메뉴얼 및 설계법에 대한 실험과 연구
- 👤 최윤경 🌐 www.mercibokku.com

이연재

- A 놀이터 전문가, 놀이터 디자이너
 - B 놀이공간 디자인, 놀이기구 제작, 안전기준점검
 - C 독일, 한국
 - D 제주도 아이들의 놀 권리를 위한 실질적인 움직임
- 👤 이연재 🌐 yeon_ashley@instagram

앞으로 제주도시재생지원센터와 디자인공장의 입주 멤버들은 제주의 좋은 인상과 이미지를 전달할 수 있는 다양한 디자인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함께하는 커뮤니티 부엌 케왓

2019년 여름, 베지근 연구소는 케왓에서 제주 음식문화를 많은 사람들과 나누기 위해 새로운 발걸음을 내디뎠다. 짧지만 의미 깊었던 맛있는 동행을 다시 한번 만나보자.

#1

7월 30일

베지근연구소로 걸려온 전화 한 통

제주여행 중이었던 젊은 여자 두 분이 베지근연구소로 전화를 걸어왔다.

“제주스러운 쿠킹클래스를 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그렇게 베지근연구소의 공식적인 첫 일정은 이 두 분과 함께 떠난 원도심 쿠킹클래스 투어였다. 베지근연구소와 함께 동문전통재래시장을 탐방하고 원도심을 함께 거닐며 두 사람은 원도심의 매력에 흠뻑 빠져들었다.

“제주에서 있던 시간 중에 가장 힐링되고 기억에 남는 시간이었어요.” 여행이 끝난 후, 그녀들에게 온 문자에 베지근연구소의 첫 발자국이 더욱 의미 있게 다가왔고 잊지 못할 시간이었다.

#2

7월 31일

가장 맑고 순수한 청년들의 방문

방탄소년단의 노래를 좋아한다는 해맑은 얼굴의 지적장애인 친구 20명이

케왓을 방문했다. 18살 친구부터 38살 친구까지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듯 순수한 마음을 가진 친구들과 노래도 함께 부르며 곧 다기를 추석을 맞아 송편을 만들었다. 송편빚기가 끝난 후 제주사랑방 마루에 앉아 함께 만든 송편과 시원한 음료를 마시면서 기분 좋은 힐링의 시간을 갖고 갖 심은 마당의 잔디도 함께 밟으며 제주사랑방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었다.

#3

8월 2일

케왓에서 내 꿈을 JOB아라! 청소년들이 재기발랄 케왓 방문기

뜨거운 한여름, 20명의 청소년들이 원도심을 방문했다. 1박 2일 동안 진행된 진로캠프의 마지막을 케왓에서 마무리하기 위해서다. 진로캠프는 진로탐색과 다양한 직업인들과의 만남으로 진행되었는데,

마지막은 제주 음식문화를 전달하는 요리전문가와와의 만남이었다. 제주전통시장을 함께 거닐며 시장 속 숨겨진 제주의 이야기를 함께 발견하고 제주에서 나는 식재료와 음식을 찾는 미션을 수행했다. 케왓에 와서는 제주 잔치음식도 만들어 보고 보리상애떡으로 샌드위치도 만들었다. 다양한 요리 관련 직업 중에서 제주다운 음식을 할 수 있는 직업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심도 깊은 토론도 척척 해내는 제주의 청소년들이었다.

#4

8월 30일

제주 MBC 생방송 전국시대 촬영한 날 전통시장탐방 쿠킹클래스가 조금씩 입소문을 타고 있는지 제주 MBC에서

방송으로 만들어 9월 6일 금요일 전국으로 방송되었다. 참여자들과 함께 카메라 앞에서 어색한 연출을 해보기도 하고 인터뷰도 하며 3시간 동안 시장탐방 쿠킹클래스를 진행했다. 같은 관심사로 처음 만난 참여자들의 각각의 이야기들과 전통 재래시장, 여기에 함께 버무려진 음식들을 나누어 먹으면서 마치 어제 만난 사이처럼 따뜻한 분위기로 케왓이 화기애애하게 밝혀졌다.



#5

8월 31일

아니 산지천에 이런 멋진 곳이 있었어요?

50대 중반부터 60대 중반까지 친목모임으로 이루어진 중년의 여성 11명이 케왓을 방문했다. 음식을 좋아해서 요리를 배우고 싶다며 찾아와 준 제주 토박이였다. 평소 배워보고 싶었던 떡과 독새기고기튀김을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가졌다. 어릴 적 보고 자랐던 제주 잔치문화 이야기도 진지하게 나눴다. 사라져 가는 제주의 전통문화들을 어떻게 많은 사람들에게 다시 알릴 수 있을지에 대한 열띤 토론의 시간도 가졌다. 산지천이 이렇게 멋진 공간들로 바뀐 모습을 보며 연신 감탄을 하며 다음 모임 역시 케왓을 방문하기를 원했다.

#6

9월 6일

가문잔치 워크숍

오랜만에 케왓과 제주사랑방에 많은 사람들로 북적였다.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지원센터와 베지근연구소가 함께 잊혀 가는 제주의 문화인 '가문잔치문화' 워크숍을 진행했기 때문이다. 많은 분들이 제주의 가문잔치와 잔치음식에 많은 관심을 보였으며, 제주사랑방 대문에는 한동안 볼 수 없었던 솔문이 세워졌다. 사랑방 곳곳에 제주 잔치를 관장하는 도감, 신부상, 돛통시가 재현되었고 1970년대 가문잔치 사진 갤러리도 한켠에 마련되었다. 냇동배기까지 깔려 정말 잔치 분위기 물씬 나는 현장이었다. 방문한 사람들은 제주 신부상에서 만나볼 수 있는 독새기고기튀김과 제주의 떡을 담은 떡반을 나누면서 사라져 가는 제주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여기에 제주한라대학 오영주 교수의 신명 나고 구수한 가문잔치 강의는 워크숍을 더욱더 풍성하게 만들었다.



#7

9월 10일

1·3세대가 함께 어우러진 훈훈한 시간
케왓과 제주사랑방에 어린이와
어르신들이 삼삼오오 모였다.

원광재가복지센터 내 독거어르신들과 애월초등학교
6학년 친구들이 만나 함께 명절 분위기를 내며
송편을 만드는 시간을 가졌다. 어르신들이 아이들에게
직접 송편 빚는 방법과 옛날 추석 이야기를 나누며
화기애애한 시간을 가졌다. 또한, 애월초등학교
친구들이 어르신들을 위해 마련한 공연인
'고향의 봄'을 연주하며 뜻깊은 하루를 보냈다.



#8

9월 11일

원도심, 우리가 지켜가야 할 유산
제주제일고등학교 유네스코 동아리
학생들이 원도심을 찾았다. 유네스코

문화유산을 연구하는 동아리 학생들로 제주 문화유산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과 함께 쿠킹클래스를 진행했다.
부모님들의 추억이 담긴 제주 음식들을 학생들이 직접
만들고 포장까지 했다.
원도심은 앞으로 젊은 청소년들이 지켜야 할 제주의
소중한 문화유산이라는 선생님의 말에 친구들의 눈빛이
초롱초롱 빛났다. 앞으로 멋있는 제주의 아이들로
성장하기를 바라면서 파이팅을 외치며 마무리 했다.



베지근 연구소는 제주음식의 가치를 사람들과
소통을 통해 찾으려고 한다. 케왓에서 즐겁고
재미있게 제주 음식 문화와 가치를 함께 찾아가고
싶은 제주 도민들을 기다리고 있다. 케왓의 문은
언제나 활짝 열려 있으니 함께 동참하고 싶은
분들은 주저 말고 노크해주세요.

주소 제주시 관덕로 17길 27
이용안내 064-727-0619



원도심, 우리가 지켜가야 할 유산

제주제일고등학교 유네스코 동아리

학생들이 원도심을 찾았다. 유네스코



엄마들이 만들어가는 우리마을 도서관 김영수도서관

마을도서관이 마을까지 변하게 하려면 속도가 느리더라도 그 동네에 거주하는
지역 활동가들이 필요하다. 김영수도서관은 느리지만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해
마을도서관 활동가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숨을 불어넣고 있다.

제주북초등학교 김영수도서관을 마을도서관으로 지역
에 개방하는 도시재생사업의 기획은 성공적이었다. 제주
시 원도심의 교육환경개선을 위해 학교, 학부모, 지역주
민, 전문가, 행정 등 많은 관계자들의 도움으로 성공적으
로 재개관했다. 도시재생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공간
(hardware)과 콘텐츠(software) 못지않게 운영자(human-
ware)가 중요하다. 운영 70%, 기획 30% 비중으로 진행해
야한다는데 이제 30%를 성공한 것이다. 남은 70%는 운영
에 달렸다.

마을도서관 활동가를 양성하다

마을도서관이 생기면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필요하다. 사
서 등 책과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람, 도서관을 관리하는 사람 등 이런 사람들을 '도서관
활동가'라고 한다. 자발적으로 의미 있는 일을 해보겠다고
나서는 활동가가 많을수록 마을도서관은 활기찬 장소가
될 것이다. 단순한 자원봉사에 그치지 않고 마을도서관이
할 일이 무엇이고, 왜 해야 하고,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
한 것인지 알고 시작하기 위해 마을도서관 개관에 앞서 마
을도서관 활동가 교육을 진행했다. 2018년 11월과 2019년
4월에 제주시 원도심 내 초등학교 학부모와 도서관 교육
및 마을교육공동체에 관심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총 6강

(12~18시간) 교육을 진행했고 2차례 교육 동안 총 49명의
수료자가 배출되었다.

그림책 동아리와 마을도서관 책 선생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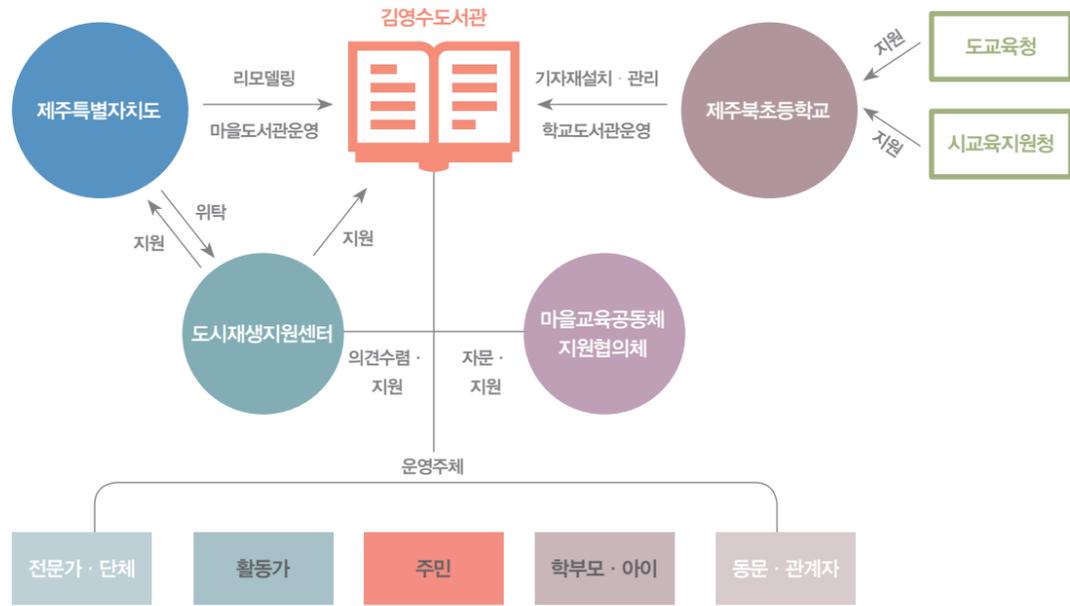
마을도서관 활동가 교육을 통해서 마을도서관의 근미래
모습을 명확히 그려보게 되었고 도서관과 책 교육의 중
요성을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교육을 통해 알게 되
고 이해한 것으로 그치지 않고 작은 실천을 해보기로 했
다. 2018년 12월부터 도서관 활동가 15명은 그림책 동아리
를 꾸리고 매주 1회 정기 모임을 가졌다. '제주도서관친구
들' 허순영 회장도 기꺼이 함께해주었다. 그림책을 통해 나
와 타인을 이해하고, 공동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실감할
수 있었으며 마을도서관 개관 이후 활동을 다짐하는 시간
이 되었다.

단순히 아름다운 도서관이 아닌 좋은 책과 좋은 어른을 만
날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으로 도서관의 역할을 위해서는
사람이 필요하다. 선의의 자원봉사자 말이다. 김영수도서
관은 제주북초등학교의 학교도서관이자 제주시 원도심의
마을도서관으로 운영·관리상 많은 이슈가 있기 때문에
유연하게 참여할 수 있는 선의의 자원봉사자가 다수 필요
했다.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자원봉사자를 모시기 위해 시
니어클럽 및 평생교육장학진흥원과 연계하여 3개월이 넘



“김영수도서관” 관계자 간 협업으로!

도, 교육청, 학교, 중간지원조직(도시재생지원센터 등), 전문가 등 관계자 간 협업으로 추진



게 협의했지만 활동조건이 맞는 봉사자들을 모시는 것은 쉽지 않았다. 지난 5개월여간 그림책 동아리를 함께했던 도서관 활동가들은 기꺼이 마을도서관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했다. 사서 선생님 1명과 활동가 선생님 10명이 주1 회 이상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해주었지만 공간 및 운영상 특성 때문에 인력이 부족했다. 다행히도 6월부터 제주대학교 교육봉사 동아리 '보통사람들' 학생들이 참여하며 김영수도서관 마을도서관에는 사서 선생님 1명, 활동가 선생님 1명, 자원봉사자 1명 총 3명 이상 상주하며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다. 김영수도서관의 활동가 선생님은 단순히 도서관 책을 정리하고 공간 및 이용안내에만 그치지 않고 도서관을 이용하는 아이들에게 좋은 책 선생님이 되어준다. 도서관 예절을 알려주고 함께 나눌 수 있는 좋은 책을 추천한다. 매일 30분씩 그림책 읽어주는 시간도 운영한다. 뿐만 아니라 퇴근이 늦는 부모님이 도서관으로 데리러 올 때까지 안전하게 머무를 수 있도록 한다.

제주의 이야기를 담은 책보따리

책과 관련된 교구들을 함께 보자기에 써서 어디서든 책을 함께 읽고 이야기도 나누면서 소통하는 콘텐츠이다. 평화도서관 황수경 관장의 교육으로 시작된 책보따리 프로그램은 도서관 활동가 워크숍을 통해 제주의 이야기를 담은 김영수도서관의 책보따리로 만들어졌다.

“엄숙하고 딱딱한 분위기에서만 독서를 했던 아이들이 책보따리를 통해 이야기 나누고 놀이처럼 즐기며 편안하게 책을 봐요. 사람들에게 ‘책은 어렵지 않고 재밌는 거구나’라고 느끼게 해주고, 그 이후에 집이든 학교든 다른 장소에서 확산 독서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죠.”
- 김영수도서관친구들 신인기 활동가 -

김영수도서관친구들의 철학

공간을 마련하는데 급급하고 공간이 마련되면 몇 사람이 투입되어 지원금으로 운영되는 도서관은 반드시 실패한다. 도서관 운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다. 이왕이면 많은 사람이 모여야 하고 이용자뿐만 아니라 도서관의 일을 도울 수 있는 선의의 사람들이 모여야 비로소 마을이 달라진다. 마을교육공동체 조성사업의 주요 내용은 공동체 교육 및 돌봄을 위한 공간과 프로그램 운영, 활동가 양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등이다. 가장 중요한 목표는 우리 아이들의 교육환경개선과 공동체 활성화이다. 김영수도서관 마을도서관 활동가들은 김영수도서관과 책을 통해 지역사회와의 소통·교류를 꿈꾸며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자라길 바라며, 김영수도서관 마을도서관의 지속가능한 운영을 돕기 위해 2019년 9월, '김영수도서관 친구들'이라는 비영리단체를 설립했다.

“책을 매개로 가족, 친구 등 공동체 간의 소통을 돕는 것이 김영수도서관친구들의 중요한 미션이죠. 책 읽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함께 어울려 즐길 수 있는 독서 문화를 만들어가고 싶어요.”
- 김영수도서관친구들 장진경 활동가 -



“돌봄은 주로 가정의 문제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양육 주체인 부모를 중심으로 학교, 지역사회가 함께 육아의 주체가 되어 아이가 안전하고 행복하게 자라는 사회 환경을 만드는 데 도서관이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 김영수도서관친구들 박민진 활동가 -

김영수도서관이 출발이 되길...

학교도서관이 마을도서관으로 개방되어 지역의 아이들이 이용하는데 그치지 않고 지역주민이 직접 운영에 참여하여 학교와 함께 도서관의 공동 운영주체가 되는 김영수도서관의 첫 발걸음은 아주 성공적이었다. 도시재생사업이 종료된 후 마을도서관 운영의 핵심은 직접 참여와 운영비가 될 것이다. 김영수도서관친구들은 김영수도서관의 취지에 공감하는 분들의 후원금(월 2천원)을 모아 재원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평등하고 민주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우리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도서관 활동을 해 나갈 것이다. 도서관 활동가들의 자발적인 연구, 기획, 활동의 기회가 주어지는 곳, 김영수도서관 마을도서관을 통해 제주의 학교 도서관 및 작은 도서관들도 변화하길 기대한다.



'바람이 이루어지는' 혁신창업 공간 'W360' 탄생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시 원도심 도시재생 사업의 일환으로 제주지방기상청 구청사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창업 및 성장지원 인프라인 '혁신창업거점 W360'(이하 W360)을 조성했다. 이번 사업은 2017년부터 제주도와 제주시도시재생지원센터(센터장 부성현),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센터장 전정환)가 제주시 원도심 활성화와 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하며 추진한 사업으로,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사업과 중소벤처기업부의 스타트업 육성·지원사업의 협업모델이다. 'W360'은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사람들의 소망(Wish), 도시재생과 함께 불어오는 새로

운 바람(Wind), 함께 만들어 가는 미래(With)의 'W'와 제주 전체를 뜻하는 360°의 '360'의 합성어로, '바람이 이루어지는 공간'이란 의미이다. 입주기업들이 고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입주실, 콘텐츠 크리에이터들을 위한 영상 스튜디오, 단기 프로젝트를 운영할 창업자를 위한 프로젝트룸, 창업자들이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한 협업공간(Co-working Space, 코워킹스페이스)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향후 지역기반 혁신창업과 관련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다. W360은 쇠퇴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혁신창업의 거점공간으로써, 원도심의 장소성을

기반으로 한 소규모 비즈니스들을 통해 유희 공간을 채우고 민간주도로 도시를 활성화시키는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의 전초기지가 될 것'이다.



도시재생 앵커시설 '(가칭)상생마당' 개봉박두

1970년대부터 원도심 상권과 함께 하며 지역의 역사를 고스란히 간직한 감협 건물이 주민 커뮤니티 공간으로 재탄생하여 주민들 품으로 돌아온다. '(가칭)상생마당'은 도심 경쟁력을 강화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도시재생사업지 내 다양한 시설과 기능을 복합화한 앵커시설 및 주민 거점공간으로 오픈될 예정이다. 이 거점공간에서는 도시재생사업 홍보 및 주민교육·주민사업 등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공동체 회복의 공간으로 운영될 것으로 기대된다. 제주시 칠성로길 1번지에 위치하며, 대지 367㎡, 연면적 1,413㎡의 지하 1층, 지상 4층의 규모이다. 지하층에는 주민들의 교육 및 회의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한 다목적 강당, 1층은 기억저장소&올레라운지, 도시재생 사업 홍보관&인포센터, 3,4층은 사무실 및 주민 이용시설, 다함께 돌봄센터 등의 공간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원도심으로 잔치먹으래 가게!



지난 9월 5일, 13호 태풍 링링의 영향권에 접어든 제주시 원도심의 제주책방에서 작은 잔치가 열렸다. 푸드 커뮤니티 공간 케왓을 운영중인 베지근연구소에서 추석을 앞두고 잊혀져가는 전통문화를 재현하고 가문잔치에 대한 이야기를 공유하고자 프로그램을 기획했다. 가문잔치를 진두지휘하는 '도감'과 제주 특유의 신부상 재현, 전통혼례상 재현, 한복 체험, 제주 윗놀이인 '낙동배기' 등의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사람들의 향수를 자극했다.

오후에는 '제주전통혼례와 음식문화'라는 주제로 한라대학교 오영주 교수의 강연도 이어졌다. 곳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많은 참가자들이 준비된 떡반과 전통음료를 나눠 마시며 제주의 전통혼례문화에 대한 정보를 나눌 수 있었다. 행사를 기획한 관계자는 "잊혀져가는 제주문화인 가문잔치를 원도심에서 재현함으로써 원주민과 이주민 간, 기성세대와 신세대 간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우리가 지켜가야 할 가치에 대해 함께 고민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며 앞으로 음식을 매개로 한 프로그램들을 많이 진행해 보겠다고 전했다.



원도심 역사문화 · 지역 커뮤니티를 위한 마을박물관 조성

「2020년 지역사회 활성화 기반조성 사업」 공모 선정

탐라문화광장은 5년 여간의 공사를 통해 인프라 개선이 이루어졌으나, 지역주민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문화적 공간은 미비하고 지역 활성화가 필요한 상태다.

또한 공간의 지속가능성 및 활성화를 위해 지역의 콘텐츠 확보와 문화공간간의 창작소 역할을 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이 필요하다. 이에 원도심 내에 방치·비활성화 된 유휴장소 또는 공공공간들과 도시재생 사업으로 조성되는 공간들을 한데 아우를 수 있는 지역 활성화 활동거점이 필요하다고 보고 제주도시재생지원센터는 유휴시설인 산지복지회관(1층)과 건입박물관(2층) 건물의 리모델링을 통해 원도심 역사문화 홍보 및 지역 내 커뮤니티의 구심점으로 활용 가능한 마



마을박물관 조성할 계획이다. 올해 안에 마을 박물관 조성사업 기본계획 용역이 발주되어 시행될 예정이며, 본격적인 사업은 내년에 시작된다.

도시재생과 스타트업의 '동행'

도시재생 지역에서 지역의 스타트업의 활동이 중요한 이유는 지역 경제 활성화에 그들의 역할이 크기 때문이다. 만약 유휴 공간에 대기업들이 입주하면 겉으로 보기에는 지역경제가 살아난 것처럼 보이지만, 대기업들의 본사가 지역 외에 있기 때문에 지역의 수익은 다른 지역으로 흐

르게 되는 것이다. 대기업에 맞설 로컬 스타트업의 성장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그들의 사업초기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줘야 한다. 이에 제주도 원도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제주도시재생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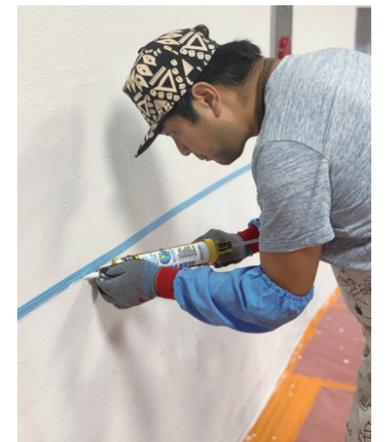
센터와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는 지난 2018년 '도시재생 스타트업 챌린지(Start-Up Challenge)' 공모를 진행하였다. 도시재생 스타트업 챌린지 공모는 제주도 원도심 내 유휴공간을 활용해 지역과 함께 지속성장할 수 있는 도시재생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원도심의 지역 현안 해결에 도움

이 되는 지역혁신 비즈니스를 유치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특히, 건물주와 임차인, 행정간의 상생협약을 통해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동반자로서 상호 협력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해당 공모에서 동행(사업: 콘텐츠 제작 오픈 스튜디오), 베드라디오(사업: 로컬 커뮤니티 비즈니스 호텔) 2개팀의 스타트업을 선발하고 유휴공간 활용을 위한 기본공사비와 사업 고도화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였다.



내 집은 내가 직접 고친다

주민과 함께하는 도민디자인교실



작년 2018년 '집안으로 들어온 디자인' 도민 디자인교실 이론교육의 성원에 힘입어 올해는 '주민과 함께하는 도민디자인교실' 실습교육으로 돌아왔다. 지난 9월 4일~6일, 24~26일 디자인공장 지하와 케왓에서 '도장의 이해', '기초 보수'의 이해'를 주제로 교육을 진행했다. 모두가 손꼽아 기다렸던 교육이었는지 신청 오픈 하루 만에 마감되어버리는 사태가 발생하였고, 대기자의 문의도 빗발쳤다.

던에드워드 페인트 원주연 실장님과 양재호 팀장님의 열정적인 진행으로 '도장의 이해' 수업에서는 도구의 이해와 사용법, 페인팅의 색상 선정과 패턴 디자인 방법, 나무의 종류 도장 등에 대한 이론과 함께 실전에 필요한 일 머리들을 알려주었고 '기초 보수의 이해' 수업에서는 실리콘 보양 등 기초 보수 이론, 퍼티를 이용한 벽 보수 및 페인트, 주방의 타일, 가구 선반, 데크 등 목작업 등을 같이 해보며 조금씩 공간을 개선하는 작업을 함께했다.

이번 디자인교실 실습교육에서는 수선이 필요한 공간을 직접 개선해보는 교육을 통해 내 손으로 공간을 살리는 힘을 기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고, 내 집을 스스로 리모델링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 공간 재생은 사람들의 꾸준한 관찰과 필요한 수선을 통해 천천히,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는 힘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시간이었다. 더욱이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의 재생에도 이런 힘이 필요하지 않을까?

